

# 技術에도 不文律이 있다



金 定 德

〈韓國 電子技術研究所 所長〉

현대 科學技術人은 先進 科學技術의 급격한 발전에 대한 열등감, 환경에 대한 불안과 불만, 어려운 對人關係등 날로 복잡해져가는 職業環境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理工系統을 공부하고 입사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성공에의 부푼 꿈을 안고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차츰 직장의 분위기에 익숙해지고 철이 들면서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대하지 못한 주위 여건에 실망을 느끼게 되거나 상급자로 부터의 편견이나 동료와의 차별을 맛보게 되는 경우가 많다.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 안정된 상아탑으로부터 불안정한 직업환경으로 전환하는 것은 큰 변혁이다.

W. J. King 교수는 “技術의 不文律”이란 제목으로 편집된 책에서 기술부서에서 技術者 각 개인이나 그 그룹의 성공에 장애되는 주요 원인은 “技術的인 特性보다 人間問題나 行政能力”에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즉, 많은 사람들이 과학기술자로 일할 때 어려움은 “科學技術에 관한 知識보다도 함께 일하는 對人關係”에 있음을 말하곤 한다.

개인업무에 관하여는 비록 하찮은 일이 주어졌을 지라도 각 개인은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많은 젊은 科學技術人들에게 기술적 과제의 허드렛일을 시키면 그들이 대학에서 배운 학습에 대한 權威와 價値에 손상이 간다고 느끼게 된다.

그들은 기업의 주요활동에 참여하여 그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주어진 과제가 사소하더라도 그 일을 해내는 정신과 성과는 주의 깊게 관찰되고 있으며 장래의 성공 여부를 좌우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즉, 追進力, 才能, 끈기(집념)는 과학기술인 각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 특성이며, 이중 끈기는 많은 과학기술인이 결핍되어 있는 요소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조직사회에서 상사에 대한 일이다.

조직사회에 있는 科學技術人은 “상사를 통하여, 상사를 위하여” 일하여야 한다. 젊은 과학기술자들이 일을 해보려고 참지 못하는 열정으로 상사를 무시하거나 상사를 거치지 않고 일처리를 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얼마 동안은 그런 방법이 일의 진척에 도움이 될지 몰라도 항구적인 해결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곧 느끼게 된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자의 인품, 인간관계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현재 理工大學 卒業者의 대학시절은 대부분 專攻科目의 교육에 치중되어 있다. 사회생활속의 과학기술자는 專門知識이 어떤 수준 이상일 경우 성품과 인간성, 社會適應性이 더 높게 평가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는 조직내에서 개인이 그 동료의 자발적인 협조없이 뚜렷한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다는 점과 그 협조의 질과 양이 “人間的 要素”에 의하여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결론적으로 완벽한 과학기술자는 존재하지 않겠지만 사회에 적응하고 사회속에 생활하는 과학기술자로서 추진력, 재능, 끈기를 갖추고 상사를 통하여, 상사를 위하여 일을 하고, 겸허한 성품과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계속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I. Q. 높은 젊은 과학기술인에게 P. Q. (Personality Quality Factor)를 함양시킬 때가 되지 않았는가?